

## The Challenge of Imposters 거짓된 자들의 도전 (고전 4 장)

### A Doubly-Dangerous Challenge

10 months ago, an article was written for a Washington DC newspaper about a well known Christian leader....“About 15 years ago, *he* spoke at a banquet in Washington, D.C., hosted by Concerned Women for America....He held the audience spellbound, the usual response to this soft-spoken Christian expositor....”

The article continued:

“If C.S. Lewis was the greatest Christian expositor of the 20th century, [this teacher] might well go down in history as the greatest of the 21st century...”

*he* talked of many things at that banquet, often cracking up the audience with wry humour. But his takeaway message was about “licit pleasures,” that is, pleasures given to us by God and which delight God when we enjoy them as He intended.

Modern humanity, *he* said, especially in the West, has become obsessed with ourselves, and especially sensate pleasures to sate our appetites. The false religion of hedonism, he said, is based ironically on sensations created by God for our own good.”

True as that may be, what’s also tragically ironic is that this apparently great expositor was indulging in the very sins he was critiquing & condemning — deceiving his hearers, deceiving his family — likely even deceiving himself as Ravi Zacharias lived a sordid & abusively predatory double life.

10 개월 전, 워싱턴 D.C. 신문사에서, 한 유명한 기독교 리더에 대해 이렇게 기고했습니다...”15 년, 그는 워싱턴 D.C. 에서 “염려 가운데 있는 여성들”이라는 단체에서 주최한 연회에서 연설하였다...그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는 매끄러운 말솜씨의 설교자에 대한 평소의 반응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약 C.S 루이스가 20 세기 가운데 최고의 기독교 해설자였다면, 이 사람은 21 세기 최고의 기독교 해설자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연회 가운데 풍자적인 유머로 많은 사람을 웃게 했다. 그러나 이 연회 가운데 그는 특별히 “합법적인 기쁨”에 대해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즐길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즐거움이다.

그는 말하길, 현대 인류, 특별히 서구 사회는,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감각적 쾌락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쾌락 주의의 거짓된 종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창조하신 “감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의 이런 말이 진실일지라도, 여기서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이 위대한 기독교 해설가는, 자신이 비난하고 정죄하던 이런 죄에 빠져 살며, 청중들과 자기 가족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비 자카리아스라고 알려진 이 지도자는 악한 사람들을 이용함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For the seemingly gracious way he refuted his anti-Christian opponents through to his testimony of faith in Christ.....he certainly had me convinced he was a gifted man of integrity. But as I mentioned in the last sermon on Hebrews several weeks back, the evidence that has come out in the last 3 months of how Ravi Zacharias conducted himself behind closed doors shows — as

far as it seems — that he was an imposter. That is, he was a deceiver—a pretender ..... someone who was masquerading or presenting himself in one way, while in reality being the very opposite.

Was there any clue that this so-called greatest Christian expositor + apologist of the 21st C was actually an imposter? It seems there was... It had to do with scholarly credentials & background he claimed to have had...a lecturer & professor at Oxford....a student at Cambridge University....for years, he lead people to believe he held a Doctorate in Philosophy...but eventually they were exposed as lies...he never held a position at Oxford...nor was enrolled in university at Cambridge...his highest qualification was a Masters.

It seems his pride...lead to deceit...& his unfaithfulness did terrible damage to many victims. It's not always easy to identify the imposter from outside....it can be harder to identify the imposter that lies within

But the Lord empowers us to do that in 1 Corinthians 4 as we see Paul contrasting his own Christ-centred faithfulness with the arrogance of the Corinthians + the fakes they'd begun to follow.

It's a doubly dangerous challenge before us — 'Do I recognise & regularly repent of pride in my own life?' If not, like the Corinthians we leave myself vulnerable to the influence of arrogant & enticing personalities & their corrupting harm.

그는 겉보기에는 점잖은 태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언을 통해, 반 기독교 지지자들을 반박했습니다...저는 이 사람이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히브리서 마지막 설교에서 이미 언급했듯, 지난 3개월간 그가 거짓된 자였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고, 위장자였던 것입니다...그의 실제의 모습은 그가 대중에서 나타나는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21 세기 가장 위대한 해설자였고, 변론가로 불렸던 이 사람이, 사실은 거짓된 사람이었다는 실마리 있었을까요? 그가 거짓된 사람이었다는 실마리를 그의 학문적 자격증과 배경에서 발견합니다...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상사 겸 교수이며...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철학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친 적도 없으며, 케임브리지 대학에 학생으로 등록한 적도 없었습니다...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학위는 석사 학위였습니다.

이는 그의 자존심이, 기만을 나였고, 그의 신실하지 못함이 많은 희생자에게 끔찍한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거짓된 자를 식별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그렇기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자를 식별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고린도전서 4 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짓된 자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 자신의 신실함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거만함과, 그들이 따르는 거짓된 지도자들 비교합니다.

여기 두 배나 위험한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자신은, 내 삶 안에 있는 자만심을 인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회개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만하며, 유혹적이며, 부패한 영향력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 The Priority of Faithfulness (1-5)

V1, 'This is how one should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Moreover, it is required of stewards that they be found faithful.'

We recall the point of the passage from chapter 1 last week was that division happens when I become ‘me-centred’ — when I boast in myself or others rather than in the Lord.

Paul continues to correct the spirit of division in the first three chapters & reinforces that message just before this chapter to say v21, ‘let no one boast in men. For all things are yours, whether Paul or Apollos or Cephas or the world or life or death or the present or the future — all are yours, and you are Christ’s, and Christ is God’s.’

The regard or way the Corinthians were to consider Paul & the leaders is mere helpers — the role of a steward....the word Paul used was the term for ‘household manager.’ Such a manager needed to be trustworthy — if they were unfaithful, the whole household would be harmed....those under their care would suffer.

Humble faithfulness is God’s priority for the Apostles....for your leaders....for you. It’s not what the world esteems — I’ve even heard the -ve tone in the answer about other evangelical pastors to the question, ‘what’s he like, how has his ministry been going?’  
“Well, he’s faithful....but not the kind of guy who’ll set the world on fire.”

### 충성됨의 우선 순위 (1-5 절)

1-2 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1 장에서의 요점을 다시 기억 할 때... 주님 대신 나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나 중심적” 생각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분열의 문제를, 첫 세 장을 통해서 바로 잡아 갑니다, 그리고 3:21-23 절에서 이처럼 말씀 함으로 그의 메시지를 견고케 합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다른 지도자들을 보기를, 그저 돕는 자로 봐야 했던 것입니다...이것이 1 절에서 말하는 “일꾼”이 역할이었으며...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이런 관리자는,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관리자가 충성되지 못하다면...이는 모든 집안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많은 사람이 고통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함 가운데 충성됨은, 사도들과 지도자들과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저는 예전에 한 목회자에 관해 묻기를 “그와 그의 사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아래와 같은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글쎄, 그 사람은 충성되긴 한데...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불을 일으킬 만한 인물은 아니네...”

It’s tragically telling that faithfulness too often takes last place in the esteemed qualities of Christian leaders — even among other Christian leaders. It’s first on Paul’s priority list.....why not all Christian leaders who supposedly follow in Paul’s footsteps?

Human pride..... We think again of Ravi Zacharias’ ministry team, family or one-time followers now...Who among them now wouldn’t trade his ‘set the world on fire’ gifts for a faithful character?

After reinforcing the priority of faithfulness & fact that God alone is the judge of faithfulness...Paul writes of his own faithfulness

### The Marks of Faithfulness (6-13)

V6, 'I have applied all these things to myself and Apollos for your benefit, brothers, that you may learn by us not to go beyond what is written, that none of you may be puffed up in favour of one against another.'

Paul & Apollos had taken the priority of faithfulness to heart.... & in that were leading by example...

Paul's prohibition of transgressing the boundary of God's word was for their spiritual safety to prevent them being 'puffed up' one over the other. Going beyond Scripture necessarily leads to pride — by definition, whenever we go beyond the written word, we elevate ourselves above the word & above others. It's the opposite of the faithful leader that Paul has just said that he is...& is about to prove that he is.... But first he needs to deflate their 'puffed-up' view of themselves....V7, 'For who sees anything different in you?'

이 답변은,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자질에 있어서, “신실함/충성됨”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자질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는 사도 바울의 리스트에 있어 가장 윗자리에 있음을 봅니다...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인간의 자존심 때문입니다...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라비 자카리아스의 사역팀과 그의 가족과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묻는다면, 이들은 인제야, 불을 일으킬 만한 강력한 인물보다, 신실하고 충성된 인물을 택할 것입니다.

이제 충성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런 충성됨에 대해 판단하시는 분임을 강조한 후...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충성됨에 대해 기록합니다.

### 충성됨의 증표들 (6-13 절)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아볼로는, 충성됨을 우선순위로 삼았고...충성됨의 모범을 보임으로 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바울의 말씀은, 그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한 영적 안전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감은 우리 자신을 말씀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거만케 합니다. 이는 바울이 앞서 말한 충성된 종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며...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충성된 종인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먼저 바울은 그들의 교만을 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Paul's implied answer is 'no one' .... i.e. no one who happened to see what was happening to the church in Corinth would be able to conclude any differently than that pride had lead to widespread exalting of one against another.

Now that Paul has exposed the fact of their pride....he uses the logical implications of grace

... ‘What do you have that you did not receive? If then you received it, why do you boast as if you did not receive it?’

After identifying their problem of pride, Paul takes them back to God’s undeserved favour — the fact that in Christ, He had lavished His grace upon them so that they were ‘not lacking in any gift.’ (1:7). It was a pure gift.....yet their boasting presumed that they had earned or deserved it.

Paul follows it up with three statements that reflect their own self-satisfied & proud attitude ... v8, ‘Already you have all that you want! Already you have become rich! Without us you have become kings!’ ...But it was an illusion of worldly pride — as Paul follows it up with a sarcastic wishful thought in an attempt to give them a reality check, ‘...would that you did reign, so that we might share the rule with you!’

Paul now presents the marks of faithfulness — the true signs of those who were first in the scheme of God...in contrast to the Corinthians

- V10. Paul gives the details of their disreputable state as God’s apostles...
- V11-12a Paul shows their Christlike-faithful responses to hostility
- V12b-13a Paul finishes by stating the utter lowliness — ‘last place’ that God had appointed for His apostles before the world,
- v13b, ‘We have become, and are still, like the scum of the world, the refuse of all things.’

여기서 바울의 묵시적인 대답은, 그 누구도 남달리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말인즉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구별되게 여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치켜세우는 교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한 후에, 은혜의 논리를 사용합니다...“*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바울은 그들의 교만의 문제를 지적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말씀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전 1:7) 말씀을 상기 시킵니다. 이것이 순전한 선물임을 강조함은...고린도 교인들이 이를 자랑함으로, 이 선물을 자신들의 공로로 얻은 것이라던가, 자신들이 이런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 간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만하며, 자기기만 가운데 있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8 절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부요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 노릇 하고 있다고 뽐내고 있습니다*”...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함은, 그들의 세상적 자랑에 대한 환상을 비꼬므로, 이들이 처한 현실을 직면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제 바울은 충성된 일꾼의 증표에 대해 말씀합니다...고린도 교인들과 대조되는 참된 충성됨의 표시를...

- 10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들로서, 그들이 얼마나 초라한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 11~12 절 초반에서, 바울은 그들을 적대시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신실한 반응에 대해 말씀합니다.
- 12 절 후반과 12 절 초반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낮아짐에 대해 말씀하며,
- 그리고 13 절 후반에서,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고다”라고 말씀합니다.

Paul & the apostles in the world's eyes were the lowest of the low. The marks of faithfulness of the 'great ones' in God's kingdom is Christlike response to Cross-like trials. It's not how we might tend to think about trials. Our natural temptation is to think that suffering is a sign either of God's impotence or his disregard.

The Corinthians had fallen for the worldly thought that being great was about power, wealth, eloquence, giftedness & strength. But the apostles — those who had seen the risen Christ — had been commissioned by the Lord with all authority to go & make disciples among the nations — though at the fore in privilege, were the last in place.

It's the wisdom of the cross....It's what is foolish in the world's eyes. It's what humbles us by removing our tendency to boast in ourselves & time after time brings us back to boasting in the Lord alone.

It's God's fatherly training. It's His way to purge pride & His way to test, ensure & grow faithfulness in us. Matthew 16:24, 'Jesus told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y the Lord help each of us not only to share His priority of faithfulness....but to recognise + even rejoice through sorrow in the marks of His faithfulness...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충성된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타내며,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정의와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통이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셔서 생긴 것이라는 생각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큰 사람이 됨은, 부와 권력과 화려한 웅변과 은사와 힘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주님의 모든 권위와 함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부르심 받은 사도들은, 그 특권에서는 맨 앞에 있었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맨 마지막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 하는 우리의 성향을 없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행하시는 훈련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제거하고, 시험하여, 확신케 하고, 성장시키는...마태복음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도우셔서, 충성됨을 우선 순위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충성된 삶 가운데 따라오는 여러 슬픔과 고난 또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The Love of Faithfulness (14-21)

v14, ‘I do not write these things to make you ashamed, but to admonish you as my beloved children.’

Paul reminds us of his loving motive — not to shame or humiliate them but to correct them as a loving parent....

In that Paul recognises the real possibility that telling the Corinthians these hard truths with his sarcasm might result in their being brought low with nowhere to go...but instead he calls them to remember who he is — spiritually speaking — under God...

v15, ‘(for) though you have countless guides in Christ, you do not have many fathers. For I became your father in Christ Jesus through the gospel.’ I urge you, then, be imitators of me. That is why I sent you Timothy, my beloved and faithful child in the Lord, to remind you of my ways in Christ, as I teach them everywhere in every church.’

Paul’s love overflowed to the Corinthians from his faithfulness to the Lord — another tangible sign of which was to send Timothy — also his beloved + faithful spiritual son.

Timothy would be a personal reminder to the Corinthians of Paul’s faithfulness...that was to imitate Christ’s faithfulness...that the Corinthians would be empowered to imitate the apostle + practice godly faithfulness as well.

### **충성된 자의 사랑 (14-21)**

14 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의 동기에 대해 다시 상기시킵니다...이는 그들에게 수치심을 줌이 아니요, 사랑하는 부모와 같이 이들을 교정하기 위함임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꼼과 함께 이런 힘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아래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기를 호소합니다.

15-17 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주님께 충성됨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랑은 그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므로 더욱 잘 나타납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울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사도를 닮아가며, 경건하며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It’s now at the end of this passage that we particularly see the central mark of the imposters...

V18, ‘Some are arrogant, as though I were not coming to you. But I will come to you soon, if the Lord wills, and I will find out not the talk of these arrogant people but their power. For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nsist in talk but in power.’

The word translated ‘arrogant’ is the same term that Paul used back in v6 in learning by the example of Paul & Apollos not to go beyond God’s word — that none would be ‘puffed up’ — ‘one against another.’ The alarming situation is that the arrogant imposters had spread their influence among the Corinthians. Like the professional orators, their eloquent words sounded so good

Beware of imposters — they may well be gifted speakers...attractive personalities...& highly skilled leaders with a host of credentials to their name.... But what of their responses to hardship? What of their faithfulness? Where is evidence of their fatherly love for those under their spiritual care?

In the reading of this chapter, the Corinthians found themselves at a crossroads — To hear & heed God’s word from Paul about the priority of faithfulness Or to continue to be enamoured with the imposters + let their influence puff them up to ultimate peril....Their repentance or rejection would determine the manner of Paul’s visitation....

V20, ‘What do you wish? Shall I come to you with a rod, or with love in a spirit of gentleness?’

Love demands at times that fathers exercise firm discipline — such is the case when children remain stubbornly committed to a path of disobedience... When children are humbled & repentant — love expresses itself in gentleness. Wise children learn that humble repentance is always better than defiance....not least because of the consequences. It’s why faithfulness in Church leaders shows itself in loving discipline — one of the key markers of a true church that the Reformation clarified.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중요한 외적 표시를 보게 됩니다.

18-20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6 절에서 언급한 “교만한”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이 교만한 거짓 교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 웅변가와 같이, 그들의 화려한 언술은 고린도 교인들을 납득시켰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그들은 화려한 언술과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신실함은 어떨습니까?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본문을 읽은 고린도의 교인들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달된 충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거짓 교사의 말을 계속 들으며, 그들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교만함을 계속해서 채워 나갈 것인지...바울이 어떤 태도로 그들을 방문할지는, 그들이 회개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1 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우리 아이가 고집을 비우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반항할 때, 부모로서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강한 징계를 필요로 합니다...이 어린아이가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사랑은 온유함으로 표현됩니다. 현명한 아이들은 겸손한 회개가 부모에게 도전하는 것보다 항상 낫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지도자의 충성됨이 사랑의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이는 참된 교회의 증표 가운데 하나이며, 종교 개혁을 통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We can be thankful that the Session here exercises godly discipline — gently, firmly — either way, lovingly. The challenge of imposters remains to this day...it will remain until the return of our Lord...that's because it remains a personal challenge to each of us before it becomes a corporate challenge to all of us....

### The Challenge Begins at Home

That makes it the hardest part of the challenge....it means dying daily to ourselves — our pride — To repent of our tendency to inflate ourselves in judgement over others  
To renounce our love of the world & its praise & increasingly to find our value & worth in Christ alone

When our own home is in order....We'll *prioritise humble* faithfulness by the grace of Christ alone....We'll pursue godly responses to suffering (the marks of faithfulness) in the strength of Christ alone & We'll heed the loving correction that flows from the faithfulness found in Christ alone.

Our union with Jesus Christ is our only hope for faithfulness & Our fidelity to Him remains our sure defence against all imposters.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당회가 경건하며, 진솔하고, 확고한 징계를 그 사랑 가운데 행함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에 대한 위협은 존재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체에 도전이 되기에 앞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도전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도전.

이는 이런 도전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죽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음은, 다른 사람들은 판단함과 동시에 나 자신을 높이려는 우리의 성향을 회개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날마다 죽음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버리고, 우리의 가치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집이 이런 질서 가운데 있을 때...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충성심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입니다...우리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환란에 대한 경건한 반응을 추구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질책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충성됨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됨은, 모든 거짓 교사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방어책입니다.